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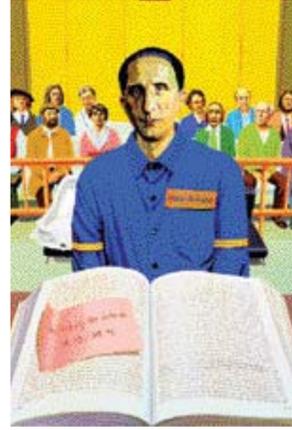
문화

김대중과 노무현 함께 차를 타고 간다면 무슨 이야기 나눌까

서기문 동행전... 13~18일 광주·6월1~10일 서울



‘동행-김대중과 노무현’



‘뒤상의 재판’

고(故) 김대중·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차를 타고 간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? 또 20세기 현대 미술을 연 마르셀 뒤샹이 미술품을 상품화한 죄목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? 극사실주의 회화를 선보이고 있는 서양화가 서기문씨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 ‘관’을 벌인다. 광주(13~18일·광주대동갤러리), 서울(6월1일~10일·자인제노갤러리).

이번 전시에서 서씨는 미술사에 큰 획을 남긴 작가와 철학자, 정치인 등 역사 속 인물들을 불러낸 ‘동행시리즈’를 선보인다.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을 ‘차안’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만나는 ‘기발한 장면’을 연출한 작품들이다.

인물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이고, 생각에 잠기거나 웃는 등 인물들의 다양 표정도 흥미롭다.

김대중·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회 장면을 형상화한 ‘동행-김대중과 노무현’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다.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김 전 대통령과 밑襟모자를 벗어둔 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좋은 웃음에서 한국 현대사의 희망과 좌절을 읽어

낼 수 있다.

‘동행 시리즈’의 배경인 승용차는 동행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상징적 기제다.

또 ‘뒤상의 재판’에는 램브란트·피카소·모네·세잔·백남준·고야·달리 등이 방형석에 앉아있다. 뒤상의 죄목은 예술 작품의 기본 조건인 표현과 구성을 무시한 ‘가상죄’에 있다. 뒤상은 현대미술의 난맥상이나 상업주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게 작가의 의도다.

‘위험의 체포’ 또한 극적이다. 위험을 소환한 검사는 철학자 아도르노이고, 경찰관은 아도르노의 제자인 하버마스이다. 변호인단에는 현대미술의 거장 보드리야르와 단토가 서 있다. 비평가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대미술의 두 줄기 큰 흐름을 한 쪽의 그림에 담아낸 것이다.

서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한국 수채화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, 1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. 또 14회 2010 대동미술상 수상, 1997 한국수채화공모전 대상 수상했고, 지난 2001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에 당선되면서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. 문의 062-222-0072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‘피아노 시인’ 쇼팽을 연주하다

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들
10·12일 기념 음악회

올해는 ‘피아노의 시인’으로 불리는 작곡가 쇼팽이 탄생한 지 200년이 되는 해다.

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지도 교수들이 쇼팽 탄생을 기념 해 두 번의 음악회를 준비했다.

10일 오후 7시30분 유·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신수경·박의혁·박수진·김용화·김선아씨 등이 출연한다.

연주 레퍼토리는 ‘장송행진곡’, ‘스케르초’ 등으로 구성된 ‘소나타 2번 작품 35’와 ‘폴로네이즈 작품 44’ 쇼팽이 단 한곡 작곡한 ‘바르카롤 작품 60’ 등이다.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음악회



〈박의혁〉

〈신수경〉

에는 안혜선·송지영·임리라·문인영·조원희·김준희씨가 출연한다. ‘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’, ‘스케르초 3번’ 등을 들려준다.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송광사 ‘보조국사 지눌 법회’

한국불교의 기틀을 세운 보조국사 지눌 스님(1158~1210년)의 불덕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.

조계총림 순천 송광사(주지 영조스님)는 9·10일(음력 3월26~27일) 양일간 보살계 수계산립법회와 종재 등 삼일불사를

대웅보전 등지에서 개최한다.

특히 지눌 스님의 열반 800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종재는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님이 주창한 ‘정혜결사’의 정신을 되살리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.

9월 대웅전에서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보살계법문, 철야법문 등이 이어졌으며 10일 오전 10시에는 보조국사 종재가 봉행되고 11시30분부터는 영가천도제가 거행된다. 한편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고려불교문화대전 특별전을 오는 31일까지 연다. 문의 061-755-0107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 /동부취재본부=김은종기자 ejkim@

제 55회 호남예술제 수상자

〈심사위원〉
한혜명(전주교육대 교수)
임옥희(군산대 교수)
김신영(목포대 교수)
구재형(호남신학대 교수)
김정아(광주대 교수)

피아노 중등부

- ▲ 금상
- 21 최형지(종양2)
- 49 조휘민(여천3)
- 52 박지선(문흥3)
- ▲ 은상
- 1 정은수(여수중앙여자2)

- 2 이다혜(일신1)
- 4 이혜민(목포중앙여자2)
- 10 김승현(여천2)
- 11 김하은(대성여자2)
- 41 이 현(광주송일3)
- 51 최가윤(일신3)
- 53 이윤영(여천3)
- ▲ 동상
- 8 김수빈(목포여자1)
- 26 이정일(광양2)
- 35 박하민(해남제일1)
- 37 정선유(일신1)
- 46 이도윤(목포중앙여자3)
- 54 김채운(일곡3)
- 60 김다현(유덕3)
- 62 문다슬(신창3)

67 오지혜(대성여자3)

피아노 고등부

- ▲ 최고상
- 46 김동민(전주예술2)
- 129 전다능(전주예술3)
- ▲ 금상
- 10 최원주(광주예술2)
- 52 이신호(광주예술1)
- 84 조영민(전주예술2)
- ▲ 은상
- 143 전초룡(광주중앙여자3)
- 5 송소현(순천대학교여자2)
- 8 김아원(광주예술2)
- 31 정성엽(광주예술2)

- 35 김은빈(광주예술2)
- 61 장연주(광주예술1)
- 65 이은화(전주전여자2)
- 66 노하영(광주예술2)
- 68 장다희(성요셉여자2)
- 76 나은유(광주예술2)
- 85 하혜수(고창여자1)
- 86 박영은(순천중앙2)
- 97 안소명(전주예술3)
- 103 김지인(광주예술3)
- 117 최예니(대성여자3)
- 137 김민영(광주수피아여자3)
- 138 이인영(전주예술3)
- 152 강성훈(전남예술3)
- 170 최아영(광주예술3)
- ▲ 동상
- 12 조민정(전남여자2)

- 13 김태영(정광1)
- 18 이은진(광주예술1)
- 21 김연아(광주예술2)
- 25 한원희(광주예술1)
- 26 안소현(설원여자2)
- 33 최지은(전남예술2)
- 55 이다선(살레시오여자1)
- 56 이진선(장성문향1)
- 58 조은별(살레시오여자2)
- 59 조근휘(수완1)
- 78 민혜진(순천중앙2)
- 82 박승준(광양백운1)
- 90 문지희(전주예술2)
- 92 이혜빈(호남삼육1)
- 104 강하나(목포정명여자3)
- 105 임지윤(광주여자3)
- 111 최하별(해룡3)

- 114 윤승필(문성3)
- 119 최슬기(첨단3)
- 125 안인경(전주여자3)
- 130 송예슬(대성여자3)
- 142 김지연(전주근영여자3)
- 145 최가영(운남3)
- 146 이가을(정광3)
- 149 신성경(광주예술3)
- 156 김유지(문태3)
- 161 조인영(목포제일여자3)
- 164 황자영(문태3)

*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 사진 2매를 5월 15일까지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.

/문화생활부장: jhpark@kwangju.co.kr

트래블로 빠르게, 크루즈로 편안하게.

새로운 제주여행

추자도+제주도	3박 4일	205,000원
선박왕복 제주	2박 3일	99,000원
한라산등반	1박 2일	98,000원
거문도/백도(광주출발)	1박 2일	159,000원

신승호 대표이사

신승호 대표이사

신승호 대표이사

신승호 대표이사

신승호 대표이사

신승호 대표이사

WOOLIAM(주)플래타늄

신승호 대표이사